



心實愛世  
攝信慈度

본회는 동문상호간의 우의증진과 모교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을 전개한다.  
(1976. 10. 15. 등록번호 라-2143호·월간·비매물)

# 東友會報

1986年 2月 28日 第109號【1】

발행인 鄭在哲  
편집인 申在益  
인쇄인 崔在旭  
편집부장 申興來

東國大學校同窓會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 3가 26  
전화: (직)267-8568·274-7449  
(교)267-8131~9(465)

우편대체: 012328-31-525669  
은행지표번호 75008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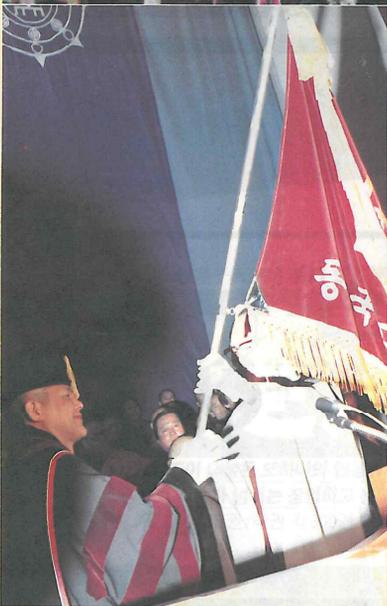
## 바른 歷史 바른 傳統, 더 많은 來日...



### 母校 제11대 李智冠 총장 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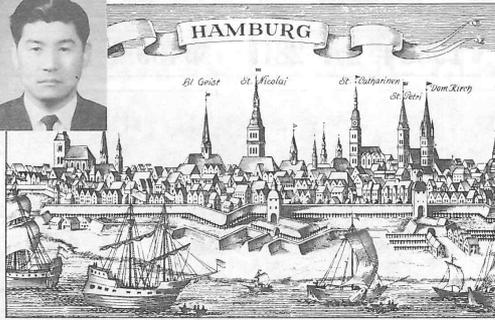
지난 5일 모교 중강당에서 있는 총장 離就任式에서 신임 李智冠 총장은 취임사를 통해, 民族文化의 맥박을 이리온 모교의 學脈과 學統을 계승·확대 및 심화시켜 모교의 세계화에 힘쓰며 全 동국인을 비롯한 불교계의 期望이었던 東國佛敎綜合醫院의 설립에 주력할 것과, 연구하고 학습하는 분위기를 일신하고 교지확장 등 시설의 확충으로 校勢擴張을 꾀하며, 우리 大學의 자율성과 건학이념에 입각한 人材養成에 힘써 모교의 교육적 긍지를 성취해 나갈 뜻을 밝혔다. (관련기사 9면)

◀ 李智冠 총장이 靑綠園 이사장으로부터 校旗를 전달받고 있다.



# “Made in Germany means quality, but some have PURE Quality!”

20余年 獨逸, 西歐羅巴에서  
우리나라, 中東, 東南亞,  
阿弗利加, 美國 等과  
各種品目的 貿易去來,  
技術諮問, 事業管理 等の  
貴重한 經驗으로, 相互  
協助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品質과 價格은 成功의  
씨앗입니다.  
願하시는 問議에 誠實히  
報答하고 있습니다.



As you know, the german quality is one of the best in the world, but some have PURE Quality as we know.

Therefore we are working successfully in Foreign Trade, Technical Consulting and Project Management with many german products (as well as other european products), more than 20-Year-Experience, from the simplest machines to the sophisticated plants.

This includes full service and licence-transfer if necessary.

Are you interested in? Please do not hesitate to contact us, we will do our best!

CHOY KG

*Henry Chan Key*  
Henry Chan Key  
President

CHOY KG

社長 崔 賢 基 (法56)

Tel.: 4103032/33, 4106401, Telex: 21 1313 choy d  
Böhmersweg 5, 2000 Hamburg 13, West Germany

(Ofcourse we also import your products)

## “천문학자라면 지금 나타난 헬리혜성의 실체모습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정보화 시대의 광고전략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 기업주라면 한번씩 생각하며 망설이게 됩니다.

유니컴은 천문학자와 같은 경험과 깊은 안목으로 수많은 별중에서 정확하게 목표점을 찾아드립니다.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마케팅과 광고의 실체를 찾아드릴 수 있는 힘이 바로 저희들의 생명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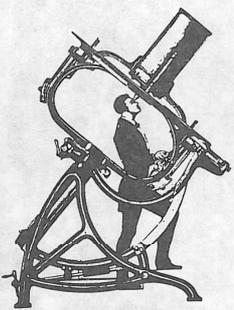
- 그래픽디자인 ■ C.I.P. 제작 ■ 인쇄매체 ■ D.M. 광고 ■ 종합광고대행
- 정기간행물 — 국제선항공시간표, 서울관광안내지도 ■ 기업홍보물 기획제작



unicom

서울·중앙우체국사서함8935호  
☎ 274-4080 · 274-1888

(김정일 사개 83)



# 熱誠

동명은 熱과 誠으로 새로운 차원을 향한 인쇄연구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東明印刷

代表 禹 昌 昱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 2가 61-16  
☎ 266-6323, 267-6313, 274-7081

# 용맹정진의 東國... 7만同門으로 成熟

## 85학년도 학위수여식 盛了...새회원 2,933명맞아

85학년도 모교와 경주캠퍼스의 학위수여식이 지난25일과 27일 각각 거행되어 본회는 2천9백33명의 새회원을 맞아들이게 되어 전체동문의 수가 7만을 넘어서게 되었다. 특히 올해는 모교가 개교 80周年이 되는 해로 7만동문의 힘을 결집하여 비약적인 발전을 이룰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25일 대운동장 수석졸업 朴鍾石군

모교의 1985학년도 학위수여식이 지난25일(경주27일) 오전 11시부터 李智冠총장, 吳絳圖재단이사장, 鄭在哲본회회장을 비롯, 교직원·학생및 학부모등 1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운동장에서 열렸다.

이날 학위를 받은 졸업생은 총 2천 9백 33명으로 박사 19명, 석사 1백 62명, 학사 2천 7백 52명(경주대 7백 44명) 등으로 전체수석 졸업은 4·5점반점에 4·43을 받은 朴鍾石(법경대·행정학과) 군이 차지했다.

삼귀의례, 국민의례, 국민교육원장 낭독, 학위수여등 순으로 진행된 이날 졸업식에서 李智冠장은 式辭에서 『개인의 발전과 80周年을 맞는 모교의 비약적인 발전을 위해 더욱 정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鄭在哲본회회장은 축사를 통해 『자랑스러운 7만

國東人の 한사람으로서 국가와 사회 어느곳에서나 필요로하는 존재가 되어 동국의 이름을 더욱 빛내줄 것』을 강조했다.

한편 총장상은 박종석(법경대 행정학과) 군이, 본교수석은 강일중(경명학과) 군이 차지했으며 오종택(불교학과) 군등 47명이 공로상을 받았다.

### 張庚鶴박사 論叢 法科동창회서준비



庚鶴(67法博·사진)박사의 고교는

法學科동창회(회장 金東正)를 비롯한 모든 동문·후학 제자들이 올해로 古稀를 맞는 義堂張



총을 출간기 위해 간행준비위원회(위원장 一輔相範)를 구성하고, 거의 행령서를 후진양성에 힘써온 民法학계의 원로이자재무인 張庚鶴의 학력을 기리기

위해 모든 동문의 빠짐없는 참여를 기다리고 있으며, 찬송동문명단은 논총에 게재할 예정이다. 연락처: (276)8131~6 交290 한상법교수

(회장 李明雄·영업 6부장)는 구립27일 오후 7시 코리아나호텔 부폐식당에서 16명 전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송년행사를 열고, 연회비 납부등의 안건을 심의하고 오랫만에 만나 동문회를 나누며 회원들의 건승을 다짐했다.

### 富川市 동문회 創立준비 職場·居住동문 참여바라

富川市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동문들이 최근 同門會를 조직기 위해 발기위원회를 조직하고 활발한 활동을 펴고있다.

富川同門會 發起委員會의 발기인 대표인 李敬秀(57영문·부천상공회의소 사무국장) 禹基福(63경제) 廉榮基(64정의·영진기공사장) 동문들이 주축이 되어 안내문 배포와 개별방문을 통해 벌이고 있는 同會조직사업은 『나날이 발전하는母校와 本會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동국인의 보람과 긍지를 느끼며 인구 45만의 富川市에도 同門會를 결성, 학맥을 이어야 하겠다』는 뜻이 영글어 열성적인 동문규합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계에 朴相淵(80경영·총무부대리) 동문등을 각각 선출했다.

또한 동회는 85년도 지회단체회비 30만원치를 보내오며 그간 소원했던 본회및 모교발전이에 큰관심을 표해왔다.

현대화재 東友會 구립27일 송년회 현대해상화재보험(株) 東友會

### 투자신탁 東友會 鄭龍談회장 유임

한국투자신탁(株) 東友會(회장 鄭龍談·63경제·영업부장) 85년도 정기총회결 송년회가 구립18일 기근호텔에서 열렸다.

23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정총에서는 임원개선을 하여 회장이 유임되었고, 총무에 崔仁圭(82경영·기회부대리) 동문 선출되었다.

### 各 東友會 정기총회열려 새임원진構成 會發展다짐

惠東會...池昌勳회장 惠東會(해화전문52년도출신)는 구립 27일 대립점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송년행사를 함께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鄭在哲本회회장을 비롯 崔載九本회 명예회장등 여러 원로회원들이 대거 참석하였으며, 화기에애한 가운데 동문애를 나누며 우의를 다졌다.

또한 임원개선에서는 회장에 池昌勳(광중철삼대표), 부회장에 李旻熙동문을 각각 선출하였다.

池蘭(54국문·복지중교 교장) 동문이 단장임에 尹乙順, 명예회장에 洪洙子(55정지)·金貞愛, 부회장에 禹順伊(60정의)·박현희(63불교)·리영자(63불교)·홍성숙(65불교)·E P J-(72형원) 등이 각각 선임됐다.

經院敎友會...朴滿희회장 經院대학인敎友會(회장 李鍾泰·신흥실업전문대 교수) 86년도 정기총회가 지난 1월29일 수안보온천에서 84명의 회원이 가족동반으로 모인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同會는 이날 총회에서 제 4대 임원을 선출하여 신임회장에 朴滿(12기)·인천전문대 무역학과장, 副會長에 盧俊來(13기·건국대), 金菊煥(15기·동대문상고), 韓玄燮(22기·대우학원장), 총무에 李勳載(10기·인천전문대) 동문을 선출했다.

東女會...安浩蘭회장 東女會(회장 金貞愛59·불교) 86년도 定期總會가 지난 1월 17일 오후 2시 연배서머호텔비니스커피숍에서 열렸다.

尹乙順(52경제·모교교수) 동문의 연회보고 順으로 진행된 이날 총회에서 신임회장에 安

### 東友漫評 鄭雲耕



祝 就任

### 經大院동창회 신년회 盛了 "떡국·期別여흥에 友誼만발"

經營大學院同窓會(회장 一奎奎)의 교양행 대표·부의 副會長) 新年賀禮式이 지난 1월22일 오후 6시 여의도 同會會館 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金完基교본, 李奎世 명예예회장을 비롯한 同會 임원등 50여명이 참석하였고, 同門 상호간 신년인사 順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曹奎희장은 會 發展에 협조해준

동문계 감사하며, 동문여러분의 일익번성과母校및 본회발전에 지속적인 성원을 당부한다』고 말하고 신년에도 더욱 열심히 會 發展에 주력할 뜻을 밝혔다. 이어 2부순서에서는 특별히 마련된 떡국으로 식사를 하며 各期別 어흥시간을 즐기며, 동문상호간의 정진을 다짐했다. <李勳載동문 재보>

### 興國生命 東友會 定總서會發展도모

흥국생명보험(株) 東友會(회장 一柳國衛·총무부장)는 구립 13일 정기총회를 열어 60여회원의 결속을 다지기 위한 임원개선을 하여, 교본에 廉慶鎬(62경제·보진담당이사)회장에 柳國衛(64상화), 간사에 黃國煥(77정의·영업 1부대리)총무에 朴明錫(81식공·총무부주임)회

### 李智冠총장 就任辭오지



文物과 學問을 수용하고 우리만의 학풍과 理想을 국외의 學界, 文化界에 전달해주는 적극적인 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를위해 도서관과 각종 연구여건의 현대화를 추진한다.

둘째, 숙원이었던 醫科大學과 東國佛敎 綜合醫敎院의 설립에 있어 그 여망에 부합할만한 계획을 추진, 이를완결한다.

셋째, 전통에 걸맞는 校勢擴張을 위해 연구하고 학습하는 분위기를 일신하면서 교직원등 근본적인 시설의 확충을 도모한다.

네째, 우리대학의 자율성과 建學理念에 입각한 교육의 필요성을 분명히 함으로써 참모필요한 인재를 양성한다는 교육적 긍지를 성취하고자한다.

이와 아울러 복지후생문제, 교수확보와 교육적외의 합리적 개편, 장학제도의 내실화 등 모교가 당면한 과제와 동국정신의 기틀을 다지는 계획을 밝히며, 모교의 전통과 역사를 결코 우리대학의 자화자찬과 인연의 방편으로만 삼지 말고 발전적 긍지로 삼아 전통과 교세를 회복, 확기와 뜻을과련시켜 넘치는 교정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신입 李智冠총장은 취임사에서 1천6백년 韓佛佛敎를 배경으로 모교가 창립된지 80주년이 되는 해에 총장으로 취임하게 되어 남다른 책임감을 느낀다며, 평소 大學의 理想과 本質에 대한 생각과 모교의 발전과 미래의 방향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李총장은 우리대학의 교육적 지표와, 自我體得과 惠知世界의 실현이라는 교육적 이상, 민족적 삶의 정신적 바탕을 마련해준 불교적 민족주의들은 東國精神의 기둥이 되어 우리 대학이 이자리에 서 있어야 할 까닭이 되는 것이라고 견제, 이러한 이념적 바탕을 중심으로 맺기 중요한 일들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첫째, 母校의 世界化에 대한 문제로 이는 선진외국의

### 총장 離就任式 祝辭

#### 동창 회장 鄭在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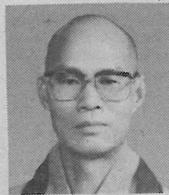
鄭在哲 본회 회장은 모교 제11대 총장 취임식에서 축사

를 통해 前任 黃壽永총장의 그동안의 노고를 기리고 신임 李智冠총장에 대한 7만동문의 기대를 당부하며, 아울러 동창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鄭회장은 신임 李총장이 그동안 佛敎宗團의 요청에 응하며 모교재단이사로도 봉직하신 경험으로 미루어 佛敎界와 財團, 그리고 동창회와의 협조관계를 원활히 하여 모교발전을 위한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

### 총장 離就任式 告辭

#### 재단 이사장 吳綠園



吳綠園 모교재단이사장은 제11대총장 취임식 告辭에서 黃

壽永전총장의 노고를 기리고, 全宗徒들의 뜻과 여망에 따라 대임을 맡게된 李智冠총장을 중심으로 일대화합하고 지혜와 용기로 80년 東國의 사명사창조에 다 함께 뜻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재단이사장은 東國教育이 지향하여온 교육적 理想을 구현하는데 쏟아온 노력이 우리文化와 매력을 상징하는 大學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보람으로 알고 이는 곧 全東國人의 긍

으로 확신한다며, 올해로 80周를 맞는 母校는 質量으로 비례해 진 교료를 더욱 충실히하기 위한 시설확충과 학구적 분위 조성, 나아가 21세기를 위한 大學의 밝은 미래를 위한 과제가 산적해 있는 중요한 시기이며 특히 신실된 醫豫科를 본격적인 의과대학으로 발전시키기위해 많은 노력과 財源이 필요할 때로 신임총장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또한 前任총장들께서 쌓아 올린 바탕을 더욱 계승발전시켜 나아가려는 新任총장의 과감하고도 소신있는 발전 의지를 7萬동문은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임을 밝혔다.

지이자 계속해야할 불변의목표라고 전제, 교육적 이상실현의 일환으로 교육연구의 보람에 최고의 가치를 두는 學風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제 東國80년의 시점에서 지난날에 대한 자화자찬이나 자기도취라는 역사보존의 전통에서 과감히 일어난 개혁과 도약의 장을 향해 매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佛敎의 自利利他를 행할 수 있는 보편적인 佛敎綜合病院의 추진을 위해 하고있는 李智冠총장의 새로운 諸시책을 전개해나가는데 적극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약속했다.

술을 오는 28일 오후 3시 모교 다량관에서 열 예정에 있다.

### 經營 2期신년회 장학기금等협의



롯데호텔 37층부페식당서 16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64년 졸업동기회인 同會는 이날 모임에서 금년도 母校 장학기금 지원의 件을 협의하고 경영학과동창회 회장단을 2기에서 맡게 될 때로 제반 운영사항에 대한 토의가 있었다.

회원중 14명이 유학생으로 구성된 同會는 各학교에 대표를 선임, 조직확화를 도모코 했으며, 신정에는 南重祐회장이 전회원을 자택으로 초청하여 잔치를 나누며 東國의 명예를 위해 더욱 정진할 것을 다짐하기도.

또한 同會의 金勝一동문과尹廣(84 철학·대만대 2년) 동문은 중국 문교부지정 장학생으로 선발돼 2월 20~30만원의 장학혜택을 누리게 되었으며, 학비가 거의 없고 장학혜택이 많은 대학 간담회에 교내유학 회담 후배들이 많이 와줄 것을 알려왔으며 진학안내에 나설듯도 전했다.

<南重祐제보>

신년해 박사학위를 취득한 金甲起(72국문) 尹光鳳(73) 李錫建(85文博) 동문이 祭主가 돼 열린 이날 행사에는 모교 교수 및 동문, 재학생등 50여명이 참석하여 旣涯선생의 유지를 되새겼으며, 石齋趙鎭演 박사 墓土도 아울러 참배했다.

또한 同會는 86년도 定期總



同會는 86년도 定期總

## 支部재파악에 계속적인 협조를

- ... 본會에서는 단원東友會와의 유대강화 및 會報·공문 반송으로인한 예신방비방...
- ... 지 및 東國人名錄 補正등을 위해 支部·支會의 인연·희원 명단을 재파악중이다.
- ... 다. 이직 현황카드를 보내지 못한 東友會는 빠른 시일내 협조해주시기 바라...
- ... 며, 본회에 등록이 안된 東友會도 이번 기회에 연락하여주시기 바란다. ...

### 예산절감·會報우송등에 진요

본회에서는 지난해 10월부터 각지부·지회의 입회 및 회원명단을 재파악 중에 있으나 각지부의 협조가 차질 없도록 각종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으며, 주소불명 등으로 회송되는 우편요금에 의한 예산낭비가 적지않은 실정이다.

과연 이에 계속되는 「支部현황 재파악」은 이러한 고질적인 예산낭비와 사무능력비를 방지하기 위한 방편이 되며, 東國人名錄 補正, 東友會報의 확대 배부를 위한 기초작업이 되므로 아직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各지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현재 재파악에 응해준 東友會는 2백50여지부 중에서 50여개 지부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본회에 등록하지 못한 東友會도 이번 기회에 상호 유대를 가져 母校 및 동창회 발전에 7만 동국인의 힘이 결집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 春川支會 활성화 定總서 임원선출

춘천지부 동문회(회장=이동석·53정치·도체육회 사무국장) 신년인사회 및 정기총회가 지난 1월 15일 오후 7시 세종관 관동대학 세종홀에서 30여 동문이 모여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지난해 7월이후 침체했던 同會의 활성화를 도모기 위해 열린 이날 모임에서 李炯波(52 정치·前도총 상임지부위원장) 동문이 사회장에 만장일치로 선임되었고, 부회장에 김영하(51 경제·합동초·조장 대표) 이해승(63경차·소양수과 대표) 변태원(63화학·대우운수 사장) 정창교(67 식공·삼성전자대리점 대표) 등문, 총무에 玉時贊(83 무역·춘천MBC 기자) 동문이 각각 선출되었다.

### 水原支會 定總 洪思日회장 선출

水原支會는 구립12일 동해장에서 동문의 발과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회장에 洪思日(60영문·경기도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조합 이사장·평동자문위원) 동문을 선출했다.

### 城北同門會월례회 창립 1년에65會員

城北同門會(회장=金光鎬·종년과 대표) 정기월례회가 지난 14일 오후 6시 울림피아레스트 앞에서 열렸다.

城北區 지역 동문들의 친목단체인 同會는 지난해 창립 이후 동문들의 열의있는 참여로 활발한 활동을 펴왔으며, 각종 경조사에 母校를 나누며 군을 계속해 다져오고 있다.

현재 65명의 회원규모인 同

會는 이번 모임에서 이인창(52 영문·대호정환직 대표) 정재수(73영문·내부부연수원 교수부장) 이상동(80工博·고려대보건의전문대 교수) 등분들을 새로 맞았다.

### 梁柱東박사 墓祭 국문과 동창회서

국문학과 동창회(회장=李丙鶴·무궁 대학원장)와 모교 국문학과·국교과는 지난 4일 旣涯 梁柱東박사 9週忌를 맞아 용인 공원묘지에서 묘제를 가졌다. (사진)

### 대만·캐나다支會 定總 개최 "이휘를 韓人實協會長 被選"

토론토 동문의(회장=金國助·63경제)는 구립 21일 오후 7시 韓人會館에서 85년도 만년회를 열고 64년의 동문부부가 참석해서가운데 새회의 조직을 다지며 세대의 한배를 즐겼다.

또한 同會의 회원인 이휘(66경영)동문은 지난 10월 30일 월도는 호텔에서 열린 온타리오 韓人實業人協會 회장선거에서 1천 5백여명이 가입된 한인교포 대표의 모임인 韓實協회장에 피선되는 경사를 안았다.

이휘동문의 당선 취에는 역대 동문회장을 비롯한 여러한실

협회원 동문들의 협조가 있어 모교에의 긍지로 동창 東國人의 단합을과시한 동회의경사.

활발한 활동을 펴온 동회는 지난 11월 9일에 은혼기념일을 맞아 鄭奎次(58 국문) 曹芳舟(58 국문) 동문 부부와 鄭觀豐(60 철학) 동문 부부를 축하해주는 모임을 열었으며 구립 30일에는 유학은 조운영(81생물) 동문의 환영회를 갖는 등 해외지부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고 꺾임은 활동도했다.

<金國助 제보> 자유중국동문회(회장=南重祐·71경영·중앙일보 臺北지국

<目次>

- 1. 모교의 창설배경과 불회
- 2. 中央佛教專門學校
- 3. 교수와 수업
- 4. 「中專」 학생회의 활동

1. 모교의 창설배경과 불회

모교가 창립 80주년을 맞이한다니 경하하여 마지않는다. 필자가 졸업한지가 올해 꼭 60년이 되니 감추지회가 새롭다. 「中央佛教專門學校」(以下「中專」略稱)는 1930년 4월 25일 수업식을 가짐으로써 첫발을 내딛어 1940년 6월 15일에 「惠化專門學校」의 기관이 교편에 걸릴 때까지 만 11년 52일, 즉 4천 67일만이 되었다.

필자는 「中專」에 1933년 4월 5일 입학하여 1936년 3월 18일에 졸업을 하였다. 「中專」이 10회 졸업생을 배출하였는데 필자는 6회 졸업생이니 중간이요. 중흥기에 편학을 한 셈이다.

佛敎宗團에서는 불교가 지닌 무한의 慈悲力과 創造力을 동원하여 조국의 自主獨立과 人類平和에 이바지하는 길은 「보살정진」의 구현뿐이라는 신념으로 인재를 양성할 학원을 설립하고자 내부에서 光武10년 2월 9일에 허가를 얻어 전국의 佛敎講院에서 大敎科를 이수하고 中法과의 추천을 받은 2명씩을 동년 5월 18일에 맞이하여 東大門外 元興寺 (現昌信國民學校) 에서 개교를 했다. 당시 교명은 「明進學校」였다.

우리의 母校 「東國學院」이 高宗 卽位 43년 光武10년 (1906년) 5월 8일을 창립기념일로 삼은 것은 여기에 연유한다. 明進學校는 개교하여 5년만에 「佛敎師範學校」로 개편을 하여 6년만에 「佛敎高僧講院」으로 재발족을 하였으나 재건반년만에 폐교하였다.

다시 반년후에 「中央學校」이 그 뒤를 계승, 명륜동 1번지 「北關廟」에서 개교를 하였으나 8년만에 한후 5년간 기한부로 휴교를 하였다.

불교종단에서는 이 터전에다 부지 3천 6백 14坪을 확보하여 1천여명은 본관교사 대지로, 2천여명은 체육장으로 정지, 1927년 10월 21일에 2층 벽돌 2백 5십 4坪을 준공하였고, 그 이듬해인 1928년 3월 31일에 「佛敎專修學校」의 설립허가를 받아 신입생 36명 (中專一回生)을 입학시켜 그해 4월 30일에 개교를 하였다.

1930년 4월 7일 「中央佛教專門學校」로 승격 허가를 받아 「佛敎專修學校」 학생 전원이 편입하게 되어 4월 25일에 수업식을 가짐으로써 「中專」은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

위와같은 우여곡절 끝에 교편에는 「中央佛教專門學校」라는 기관이 걸리었고 학생들은 무궁화 꽃잎위에 흰 사기 색으로 「中專」이라 새겨진 도표를 단 학사모를 쓰게 되었다.

<이때 우리 국내의 고등교육기관으로는私立인 延禧專門, 普成專門, 세브란스의학專門, 梨花女子專門, 치과의학專門 (現서울대 치의大前身, 日本人設立) 약학專門 (現서울대 약大前身, 日本人設立) 平壤 娯樂專門 등 7개교와官立인 法

學專門 (現서울대 法大統合) 의학專門 (現서울대 의과대통합) 高等商業 (現서울대 大商大) 高等工業 (現서울대 大工大) 水原高等農林 (現서울대 農大) 京城大學 (豫科並設 現서울大京大前身) 등 6개교가 있었다. 이외에도 중등학교 졸업생이 입학하여 전문과목을 이수하는 학원으로는 明倫專修學校 (現 均館大前身) 女子의학강습소 (現高麗大 의과대前

身) 등을 길러 왔다. 「中專」 학생들은 후원에다 채전을개간하여 삼치, 배추, 옥수수 등이 풍로 길러져 봄 가을전심시간에 三五五작반하여 잔디에서 삼을 싸먹었다. > 「中專」의 체육장은 본관대지보다 4~5m 낮은 정원에 있었는데 2천평 정도였다. 체육장은 절반이 연식정구장에서 춘·하·추 세계전은 별도로 사용을 하였고 등에는

전체를 축구장으로 사동을 하였다. <이 체육장에서 갈고 뒤은 斐成敦 (8회) 李允祥 (8회) 조는 전국高專 연식정구대회에서 준우승 (1937년)을 하여 교명을 선양하기도 하였다> 감당에는 세대의 타구대가 있어, 방과후에는 학생들이 필풍으로 체력대련을 하였다. <동양 제-인자요 세계적인

타구선수 崔根恒선수도 이 타구대에서 반년을 연마하였는데 日本 關西大學으로 스카우 되어갔다> 「中專」생들은 여가를 선용하여 교정 나무 그늘에서 기보를 즐기었는데 경기보다는 바둑을 두는 사람이 많았고, 교수자가 많았다. 그때 전국의 高專大學의 바둑대회가 있었다면 단채전은 우승을 하였으리라 본다.

「東國大學」하면 제일먼저 연상되는 것이 세계적인 회귀본을 많이 소장하고 있는圖書館이 떠오른다. 이 회귀본은 「中專」 때 소장하였던 것이며 이 도서야말로 국보적인 존재라 하였다.

필자가 입학하였을 때 「장서관」은 50여명이었는데 겨우 사람하나 드나들 정도의 통로외에는 서가에 장서가 집적이 쌓여 있었다.

장서는 5만여권이 된다고 하였고, 그때 도서관장은 趙明基 동문이었고 부관장 韓英鶴 동문 필경생 보조원등 5명이 있었는데 본교의 교수, 강사, 학생, 외부의 학자 교수들의 열람이 많아 바쁜 나날이었다.

京城大의 日本人 교수들이 다수 「中專」에 강사로 출강을 하는 것은 회귀본 열람을 목적으로 오르는 것이었다.

우리 교래의 학자들도 많이 출강을 하였는데 주에 두서서간 강의를 하였고 출강 도서관에서 회귀본을 열람하였다.

春國 李光洙 (朝鮮文學講讀) 翁初 洪命喜 (朝鮮文學史) 下榮晚 (中國文學史) 등은 회귀본을 열람하였는데 다섯손가락을 꼽아도 한번에 4~5회 목과를 하여 한투에 심취권을 잃었다고 하였다.

「中專」 도서관에는 벽인의 이국인도 종종 들렀지만, 中國 蒙城, 滿州, 印度, 버마, 타이, 불령 인도지나 (월남, 월맹, 캄보디아) 일본의 교수 학자들이 끊임없이 와서는 회귀본을 열람하였다.

그들은 「中專」의 장서에서 터득한 학식으로 博士學位를 획득한 사람이 많았다.

「中專」의 장서는 아니 「東國大學」의 도서관은 국보적인 존재일뿐 아니라 세계의 보고요 인류 지식의 보보적인 존재라고 하였다.

<「中專」의 국보적인 장서도 한해 수년을 겪게 되었는데 趙明基 동문이 泰德寺에 옮겨 헌신직으로 사수하였기에 한편의 손실도 없이 「東國大學」 도서관에 현존하게 되었다. <계속>

中央佛教專門學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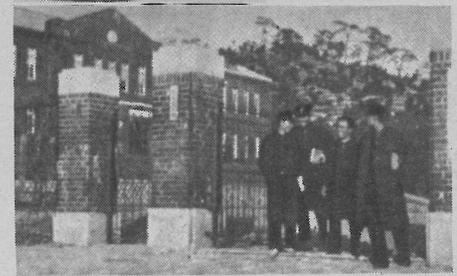


隱心金基煥

1906년 明進學校개교에서부터母校의 창설배경과 뿌리, 中央佛專단시의 사회와 東國의역사를 만들어 온 인물들과 함께 中專의 모습이 생생하게 소개된다. 학교법인 雲水學園설립자이며, 滿鮮日報기자, 추종령中, 聖一中, 廣豐 中교장등 36년간을 언론계와 교육계에 봉직했던 金基煥 (中專 6회 · 1936년주) 동문이 모교의개교80周年과 필자가 졸업한지 50년이 되는 해를 맞아희망한「中央佛教專門學校」를 3회에걸쳐 연재한다. <편집자註>



중앙불전의 교모, 무궁화꽃잎위에 흰사기색으로「中專」이라새겨진도표를 달았다.



▲中央佛專의 하교광경

2. 中央佛教專門學校

필자가 입학 하였던 때는 전문학교로서의 규모가 잡힌때이었다.

北漢山 영봉이 병풍을 이루고, 北丘의 줄기를 따라 漢陽城壁이 울어지고 惠化의 절은 숲속에 우람하게 높이 솟은 우리의 母校였다.

본관 중앙강당의 연꽃 무늬는 떠오르는 햇빛을 받아十方世界를 비추는 보살이었고,

明進學校개교...민족사의 새후열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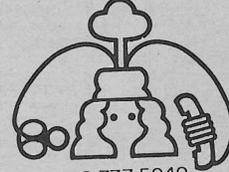
5만여 회귀본소장 도서관은 국보적존재

惠化洞 언덕위 영두가 꽃동네를 이루고, 惠化川 버들 (재래조선버들)이 우거져 常夏의고장이 되고, 교정은 常綠樹 무성한 鹿野死이었다.

雙溪川 맑은 물은 학원 좌우로 솟음이 흘러 내리었고, 老松으로 둘러싸인 뒤뜰 曾失坐立 (曾子, 朱子 벽립·논이) 약 5m 넓이 약 7m) 밑의 曾失泉 (現 個人庭園) 샘물이 솟아 올라 전교생이 마시었고, 惠化洞民에게 給水功德를 베풀었다.

<이 샘물은 암벽 사이에서 흘러내리는 것이 아니라 반석에서 솟아올랐다. 그 반석위에 고인돌을 놓고 고인돌위에 큰 석대를 올려놓아 그 석대 위에서 石井에 고인 물을 거슬러 떠 마시게 되어 있었다.

물이 반석에서 솟아 오르며 거슬러 떠 먹기 때문에 이 물을 장복하면 허약한사람은 강건하게 되고 건강한사람은 힘이 세어지고 장수한다는 전설까지 있어「약수」라고하여 장안 각처에서 이



**꽃배달**  
FLOWERS BY PHONE

☎ 777-5040

전화 한 통화로 축하의 기쁨과 민족의 꽃이 됩니다.

**777-5040**

꽃배달·신부군  
**부모의 꽃방**  
중구 소공동 1번지 롯데호텔입구



### 국제공항공협회부회장 피선



**尹錫均** (69생년) 국제공항공협 회장 관리공단 이사장·본회 부회장) 등은 지난 1월 18일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는 처음으로 국제민간항공협회(ICA A) 세계이사와 부회장과 국제공항공협(AAC C) 조정위원회 대표위원에 선출됐다.

입업으로 있으면서 이기구의 회원을 위한 헌신적인 공헌과 국제항공무대에서의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제네바에 본부를 둔 AA CC는 1백여의 회원국을 가지고 있으며 10명의 대표위원들이 전세계 공항문제들을 다루고 있어尹錫均의 피선은 국제민간항공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위치를 더욱 공고히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准格으로 기원한후, 서울신문 전문이사, 중앙정보부장직무대행등을 역임한尹錫均은 현재 행정대학원 동정직장으로 활약하고 있으며 78년 모교에서 정치학박사를 취득한바있다.

▲회장관 ( )=공덕동지점에서 광역지점으로  
 <東東報제보>

### <홍콩생명>

▲曹錦煥(70상학)=순천염업국장에서 광주염업국장으로  
 ▲楊聖鐘(71경계)=전북염업국장으로, 전주 서노숙동658-17  
 ▲南啓榮(71인학)=대전염업국 관리과장으로  
 ▲金銀榮(72법학)=전남염업국장에서 목포염업국장으로  
 <金南泰제보>

### 出入國

▲崔載九(52국문·본회 명예회장·국회의원)=지난 1월29일東京에서 열리는 한일의원연맹회장단회의에 참석키 위해 28일 출국했다가 귀국.  
 ▲洪淑子(55정지·본회 부회장·한국여성단체협의회장)=세계여성단체협의회 부회장이격으로 업무의차 구미출장을 위해 1월19일 출국했다가 귀국.  
 ▲崔武成(64경계·광운대이사장·대한아이스하키협회장)=日本에서 전지훈련중인 광운대 축구팀을 전지키 위해 1월17일 출국 20일 귀국.

### 移轉·開業

▲李鍾善(61국문)=공인 감정평가 업무를 보는 영신감정평가사무소를 개업. 강남구 논현동142-1 한산빌딩201호.(548) 4042, 4043.  
 ▲金在鵬(80경영·연세 컴퓨터소프트웨어(주) 대표이사)=여의도동14-2 동아빌딩 2층으로 확장 이전, 병일업무소프트웨어·섬유및부여업체 판매및제조관리·공정관리취급.(784)5584

### 回甲

▲申寬浩(73경계·東大新聞社 편집국장)=父親回甲 2월26일 전남 고흥군 동강면 농동리자택서. 연락 東江324번

### 訃音

▲申奘浩(61법학·금강철강사무이사)=祖母喪 1월15일 오전 성북구 정릉동 506-78 자택서.  
 ▲朴秉洙(61법학·前디트로이트동정회장)=母喪 1월19일 서울대학 병원서.  
 ▲朴贊大(62경학·본회이사)=母喪 2월6일 자택서 연락(798)0061.

### 結婚

▲南相龍(49해전·株)크로바 회장·본회 상무이사)=장남 鄭炳浩. 지난 1월16일 오후 1시 서울 한국종합전시회관에서 예식부에서.

<차장급>  
 ▲崔本城(63상학)=검사부에서 동대문지점으로  
 ▲崔允燾(66경계)=을지로 6가지점에서 성동지점으로  
 ▲文俊明(68농학)=돈암교지점에서 용산지점으로  
 ▲金煥(70경계)=남대문지점에서 소공동지점으로  
 ▲高相源(71상학)=을지로 4가지점에서 한남동지점으로  
 ▲徐秀一(71법학)=사우대지점에서 해동산업부실로  
 ▲李鍾浩(71상학)=중앙동지점에서 돈암교지점으로  
 ▲崔漢植(71상학)=영동지점에서 여삼동지점으로  
 ▲金樞(72상학)=동인천지점에서 을지로 4가지점으로  
 <대리급>  
 ▲洪漢約(68경계)=부산서면지점에서 부천동지점으로  
 ▲具兵書(73경계)=인천남지점에서 동인천지점으로  
 ▲韓喆植(74부역)=서대문지점에서 남산지점으로  
 ▲李元吉(76법학)=가좌동지점에서 특수염업부로

### 새 주소를 알려주세요

※다음은 본회가 파악한 새 주소입니다. 아직도會報를 못 받아 보시는 분에게는 연락을주시면 곧 보내드리겠습니다.

- ▲鄭益鎔(48해전)=구로구 궁동 210-8 대주엔업 A동204(684) 0217
- ▲柳東烈(57법학)=충남 금산군 진신동 읍내리 509번지
- ▲鄭英鎔(61상학)=종로구 삼청동 신1번지 중앙교육협력원
- ▲元容燾(63경계)=강동구 신천동 정미A P T 24동601호(415)8084 남양전기(株) 대표이사구리(2) 6402(7)3881-2
- ▲張錫榮(63법학)=도봉구미아동 231-11
- ▲朴敏珠(64법학)=63Strathmore Rd Manhasset.N.Y.11030
- ▲丘在福(68상학)=강남구압구정동 현대A P T 123동1102호(541) 2717 구로구 구로동1124-42 흥안공업(株) 사무이사(853) 1717-4
- ▲申相璽(70국문)=경기도안산시 중앙동 예술인A P T 9동708호(82) 5257 경기도 용인군 용인읍 삼거리 대한유도대학 학보사 주간실(32) 6471-9
- ▲崔植株(70상학)=중구 중림동 179번지 13동3번
- ▲金德壽(72상학)=서대문구홍제3동 267-28(737) 0328
- ▲金相樞(72 상학)=강동구성내동 427-48(476) 7392
- ▲南吉文(74 영문)=강서구들충동 520-3 신성주대 A동 203호(697) 2462
- ▲晉日輝(74경영)=전북 전주시 교동1기1961-2 자(6) 1346 직(6) 4468
- ▲金弼燾(56 법학)=강서구 화곡동 839-4
- ▲李學珪(57 경계)=서대문구 홍제동 283-3 서대문구병천동 31 가리교신학대학 사무처장(363) 4941-5
- ▲鄭秀男(58 영문)=중구남산동 2가 1-1 서울 프린스호텔(752) 7111-9
- ▲鄭龍燾(61 경계)=강남구반포동 279-5 신반포A P T 1차 20동401호 두산개발(주)사무이사(678) 5868
- ▲金洲植(62경계)=영등포구여의도동54 진주A P T B동703호(5) 正韓료리아 대표이사(567)7675
- ▲延秉求(63상학)=서대문구북아현동189-25(362)4008
- ▲吳根植(63정지)=성동구성수1가9-1 영충후업
- ▲趙鎭泰(63법학)=관악구신림동1444-1 자(878)2879 직(884)8863
- ▲許蔭行(63정지)=성남시성남동 17-17(2)4317
- ▲林文圭(64 정지)=경북상주시 중앙동 국제슈퍼마켓
- ▲池後龍(64 법학)=한국갑정원 인사과장(555) 1174
- ▲趙善行(66 영문)=종로구홍로6가 213-1 그로리아상사 대표(762) 4263
- ▲崔植(66 경영)=마포구도화1동95-1
- ▲金載龍(69 법학)=서울지방법원정지국관리과 계장(771) 232448
- ▲金樂敬(72 상학)=강남구대치동 은마A P T 27동1001호(562) 8637
- ▲張善茂(72상학)=경기도화성군 반월면 매리리 513-1(80)1707
- ▲鄭茂燾(72상학)=종로구 장사동 세운상가 가동1층 154호 대표사(269) 7416
- ▲安湖學(76경계)=중구 수표동 56-6 일광지영(株) 대표이사(272) 9798-9
- ▲閔麗源(82부역)=한일은행서소문지점(777) 3155-9

### 會費를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1년에 1만원...회보제작·장학기금·사무국운영에긴요

- ▲회장단 분담금 ▲馬鍾植=50
- ▲常務理事 會費 ▲朴三善(55법학)=20
- ▲원홍선( )=
- ▲이서홍(58정외)=
- ▲박은규(61정지)=
- ▲이우재(63정지)=
- ▲理事會費 ▲한영준(73부역)=5
- ▲이광재(45법교)=
- ▲황경석( )=
- ▲공지호(68농학)=
- ▲원장원(71상학)=
- ▲윤부성(53정지)=10
- ▲박근영(62정지)=5
- ▲강병국(68경계)=
- ▲유정길(68경계)=
- ▲조춘환(74정지)=
- ▲정기호(62정지)=
- ▲박대혁(63생물)=
- ▲김교근(64정지)=10
- ▲유병관(69정지)=5
- ▲김완식(72농학)=
- ▲최세화(57국문)=
- ▲이창영(52정지)=
- ▲민경봉(64법학)=
- ▲최성호(65국문)=
- ▲金星土(79생원)=
- ▲年會費 ▲조석영(62국문)=1
- ▲김우열(81법학)=
- ▲이길우(69법학)=
- ▲호교순(75농학)=
- ▲이병훈(63법학)=
- ▲김재원( )=
- ▲이택노(70농경)=2
- ▲이경순(64법학)=2
- ▲이신영(70정지)=
- ▲이필근(74제교)=
- ▲유홍기(53국문)=
- ▲임돈서( )=30\$
- ▲추필석(75생원)=1
- ▲조승희(67경영)=
- ▲조승봉(84정지)=
- ▲여상식(82회계)=
- ▲정일대(83회계)=
- ▲공호영(81회계)=
- ▲이용호(72상학)=
- ▲이항주(73농학)=
- ▲동시영(74국문)=
- ▲김태원(77제교)=
- ▲신현석(83국문)=
- ▲오택원(77국문)=
- ▲배용만(76제교)=
- ▲정해일(78생물)=
- ▲최선희(79국교)=
- ▲이경교(80국교)=
- ▲박재원(81정원)=
- ▲한형석(58법학)=
- ▲김침수(83정원)=
- ▲권하숙(68경영)=
- ▲황선우(73농경)=
- ▲조현수(64농경)=
- ▲김집문(59상학)=3
- ▲정영파(84정원)=1
- ▲윤대환(58국문)=
- ▲정의순(57국문)=
- ▲허성수(81법정)=1
- ▲류병호(63경영)=
- ▲이화래(63경계)=
- ▲김환기(57정지)=
- ▲김정식(61법학)=
- ▲이규산(58정지)=2
- ▲배홍종(52정지)=1
- ▲최희배(85부역)=
- ▲조만행(70경영)=
- ▲이세우(73농학)=
- ▲원영원(65영문)=
- ▲최유환(65경영)=
- ▲이화규(56경계)=
- ▲양성식(84법학)=
- ▲이병훈(83국문)=
- ▲손상환(84법학)=3
- ▲김병수(70법학)=1
- ▲김재후(79정원)=
- ▲이자화(67상학)=
- ▲탁종훈(81법학)=2
- ▲김영민(62경계)=
- ▲윤경수(58영문)=
- ▲박정희(85부역)=
- ▲송관현(62법학)=
- ▲이원철(61정지)=
- ▲조종진(58정지)=
- ▲황성관(80법정)=
- ▲김재진(85국문)=
- ▲정재우(85부역)=
- ▲송관현(62법학)=
- ▲이원철(61정지)=
- ▲조종진(58정지)=
- ▲김복수(67상학)=
- ▲양광복(73국문)=
- ▲김재진(85국문)=
- ▲유병관(69영문)=
- ▲광교로 ▲최화기(56법·독일문류의 會費)=633, 798원
- ▲고려원(代表: 김낙원)=100
- ▲會報106號=70
- ▲107號=30

### 단체회비

- ▲서울신단은행동우회(회장: 김춘수)=30
- ▲한국강정원동우회(회장: 함진희)=5
- ▲합성여중 동우회(회장: )=10
- ▲대관동우회 회장: 남중우)=100\$
- ▲홍콩생명보험동우회(회장: 유국교)=30
- ▲광고료 ▲최화기(56법·독일문류의 會費)=633, 798원
- ▲고려원(代表: 김낙원)=100
- ▲會報106號=70
- ▲107號=30
- ▲東國대학 회행운상품代金 (가담이후접수분)
- ▲제일은행 동우회(會長: 정희)=5

# 남산글回想

도문작가 코멘트 연어본

<3>

**내가** 대학을 졸업한뒤 애처움으로 모교에 가볼수 있었던 것은 세해전의 초여름이었다. 학교에 첫발을 담은 때로부터 14년, 졸업을 하고나서 9년이란 세월이 흐른 시절이었다.

학교를 돌아보고 나서 느낀 점은, 많이 변했구나 라는 것이었다. 새로 여러개의 건물이 있고, 그에 따라서 캠퍼스가 넓어져 있었다. 불상 앞에 서서 앞뒤로 한 차레 고개만 돌리고 나면 학교의 모든 것을 볼수 있었던 시절에 비하면 변화도 많이 변했다는 느낌이였다. 운동장이 없어서, 도서관 앞

이것이 대학의 캠퍼스로구나 하는 탄식인지 뭔지, 감탄은 결코 아닌 그런 말을 중얼거렸다.

**학교** 생활이 시작되자 나는 더없이 바빠졌다. 강의를 나는 일은 물론, 하고 많은 모임에도 빠질수가 없었던 것이다. 합평회와 시화전, 가을에 따로 열리는 문학연, 그리고 날이면 날마다 벌어지는 술자리도 마찬가지였다.

내가 그런 자리를 열심히 찾아다녔던 것은, 아마도 선배들 때문이었을 것이다. 좀 보태서 말한다면 하늘의 별만큼이나 많은 <기성문인>들이 동국의 하늘에 높이 떠서 찬연한 빛을 발하고 있었는데, 나는 선배들이 주도하는 술자리에 팔삼으로 끼어서 별을 바라보는 소년처럼 때로는 한숨을 짓고, 때로는 노래를 불렀던 것이다.

동급생만이 따로 모이는 때도 자주 있었다. 장소로는 등우담 밑이 되기도 했고, 석조관이 서있는 언덕 밑에 있는 풀장이 되기도 했다. 「사색의 길」이란 그 길을 가면 봄에는 아카시아가 피어서 코속을 잔지럽히기도 했지만, 이

# 남산이 '뒷동산'이던 시절

면서 다음 합평회 작품으로 무엇을 구상하고 어떻게 써야 할 것인지를 일러 주었다.

**우리의** 가슴은 술에 젖어있기도했다. 아직 남산허리에 순환도로가 생기기전어서, 수업이 빠진 시간이면 우리들은 남산으로 올라갔다. 남산은 우리학교의 「뒷동산」이었다. 뒷동산에는 온갖 수목과 짐승들이 살고 있었고, 「도라지 위스키」를 파는 아주머니들도 많았다. 왜 술을 마셔야 하는지? 왜 취해야 하는

많은 누름들이 되어 우리들모두의 머리위에 놓여졌던 것이다.

2학년 초에 「실림」이란 동인을 결성한 이유 중의 하나는 그 누름들의 무게 때문이었다. 동기생인 이명주, 김장범, 김병길과 한해 아래인 최순열 입성은 그리고 나를 합한 6명이 만났는데 이명주와 김장범과 최순열은 시를 썼고 나와 김병길과 입성은 소설을 썼다.

**그해** 여름 우리는 동인지 제1집을 할판으로 간행하였는데, 당시(19



▲제1 강의실(중정전)

68년)에 대학생들이 환관으로 동인지를 발간했다는 사실은 모두를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다. 대담하게도 「실림」동인지는 3집까지 발간되었고 타대학 뿐만 아니라, 기성문단에까지 충격을 주어서, 결국 「문예대사진」에도 「실림 동인」의 활동이 자원으로 남게 되었던 것이다.

우리는 글을 공부하는 일과는 별도로, 오출세 화형의 학생회장 당선을 위해 동문서주했던 일을 잊을 수가 없다. 국문과에서 총학생 회장이 나오기로는 개교 이래 두 번째였는데, 그와 우리가 그 일을 해냈던 것이다. 그결과 그는 십

수년 동안 휴간 신세를 겪고 있던 「동국 문학」을 복간하는 힘든 일을 해내주었다.

**그밖**에도 많은 이야기들이 있다. 때로는 나를 타는 듯한 열기속으로 돌아 넣기도 했고, 가슴저리는 슬픔속에 빠뜨리기도 했고, 견장을 수 없을 만큼한 분노에 휩싸이기도 했던 많은 이야기들이 지금의 가슴속에 낙엽으로 쌓여 있다.

앞서도 말했지만, 모교는 분명 플라불란을 변했다. 그 변화와 함께 「전허학원의 대학」으로의 발전은 필수적일 것이다. 우선은 공지가 더욱 필요하고 그에 따른 노력이 더욱 필요할 것이다. 과거는 현재를 위해서 있고, 또 현재는 과거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동국발전의 모습이 과거를 빛나게 해줄수도 있는 일이며, 과거가 자칫 「솔로몬의 영화」로 남을 수도 있는 것이다. 서로 함께 매진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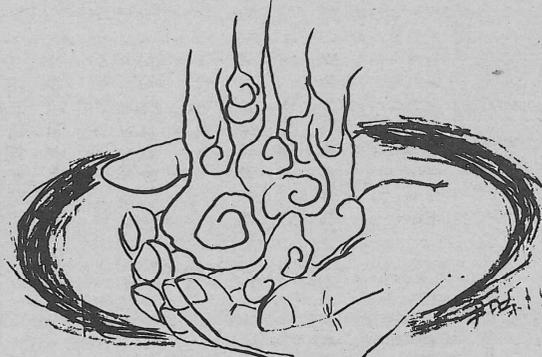


李相文

李相文동문은 67년 모교 국문과에 입학, 74년에 졸업했으며 현재 한국제지공업연합회 총무부장으로 근무중이다.

『月刊文學』에 단편소설 「탄흔」이 당선되어 등단한후 「더림집」 「소리와 그늘」 「오줌으로 지운 열두 발자국」 「그 계단의 끝」 「남겨진 한방」 「숨은 그림찾기」 등의중·단편을 발표하며 있으며 『참칭』同人으로 활동중이다.

## 남산엔 수목과 짐승... 도라지 위스키엔 情恨



**東友塔 언저리에는 분노와 아픔이 기다리고 있었고, 폐허가 된 풀장에 회한과 허무가 늘 고여있다가...**

들만큼 근사하지는 못했고, 4·19의거에 참여하여 희생당한 선배들을 기념하는 「동우탑」은 퇴색권<4·19정신>만큼 볼품이 없었다.

또 지금은 운동장의 서쪽 스탠드가 된 자리에서, 보수조차도 불가능해 보이는 풀장이 하나 누워있었다. 짙게 벌어진 바닥에 돌이 고갈리 만무했고, 가을이면 낙엽이 쌓였다.

우리는 봄이면 등우담 언저리에서, 가을이면 풀장 언저리에서 합평회를 열었다. 볼품없는 등우담 언저리에는 분노와 아픔이 기다리고 있었고, 폐허가 된 풀장에는 회한과 허무가 늘 고여 있다가 우리의 가슴을 쓸어냈다. 그러

지 따져 보는 일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었다. 그것은 저놈들이나 할 일이었다. 마치 왜 글을 쓰는지, 왜 글을 써야 하는지를 따지는 일과 다를 바가 없었다. 그냥 마시는 거고, 또 많이 마시는 것이었다. 글을 그렇게 쓰려면, 술도 그렇게 마셔야 한다는 「확신」이 있었다.

술에 젖은 가슴속으로 분노와 이쁨과 회한과 허무가 야금야금 스며들면서 외쳤다. 「너희들은 전제제의 국문과를 다니고 있는 거다!」 우리는 누구도 일을 열지 않았다. 그렇든 두려움이었다. 알고서 찾아온 대학이었지만 새삼스럽게 취한 가슴에 흥건히 젖어있는그

## 전기기사 朴龍壽

61년에 부일한 이래 24년째 근무하는 전기기사 朴龍壽씨(65세). 그간변모해온 모교발전에 대한 물음에 한마디로 『엄청나다』고만 잘라말한다. 「그 당시 학교 주변에서 하숙을 하며 공부하던 학생이 지금은 모교 교수로 재직중」인 사실이 그가 근속해온 햇수를 짐



이 사람

작게 한다.

2대 白性都총장 시절부터 지금까지 모교모든 전기시설을 도맡아 처리해온 그는 傳聞이 잦았던 60년대엔 야간대학수업을 위해 혼자서 주말시간을 통틀어 근무하기도 해 집에 갈수 있는 날은 일요일뿐이었다고 회상한다.

모교발전설치공사가 어떤이 채 근무하게 됐고, 변압기 화재사고와



## “학교주면서 하숙하던 학생이 지금은 모교교수로”

電柱 설치하다가 같이일 하던 이가 쓰러지는 전후에 크게 다친사고등, 언제나 전기란 것이 뒤를 따라다니는 사고·고장의 뒷연에는 그가 있었고, 그 당시인정대 정년퇴직(78년) 후 현재는 임시직으로 근무중인 그는 술하에 2男1女를 두고 있으며, 장남은 모교 화공과에 재학중이기도. 「임시직으로 다시 일하게 해준 학교에 감사할 따름」이라고 말하는 그의 표정속엔 평생을 기는 날은 일요일에 東國 80년과 더불어 북돋아살아온 東國愛와 함께 투철한 장인 의식이 배어있다. <원>

의 손바닥만한 빈 터와 등우담 밑의 선무부 건물앞마당에서 체육시간을 배우면서, 힙주어 품 한번 차지 못하면서 젊은 이미 아주 오랜 옛날이었다.

그날 나는 자신이 처음 만났던 학교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지 않을수 없었다.

**제일** 산부인과 병원이 산부인과 병원이 있는 좋은 골목을 고집스럽게 지키고 서있던, 장식이란 전혀없는 교문을 들어서면, 왼쪽 언덕배기에 명성학교의 허름한 기와지붕이 커다랗고, 돌계단 위에 의연하게 버티고 서있는 환관문을 만났다. 돌계단을 오르다를 때와 본부대로 오르는 길로 접어들면 왼쪽 등우담이 있는 언덕 밑에 고색이 찬연한 기와집 한채를 볼수 있었다. 정말이치 밧소리만 크게 내어도 족사면 지를 괴워올리려 내리 앉을것만 같다. 그 건물은 나중에 알고보니 일제차 경회공을 없앨 때 옮겨온 「순정전」이었고, 또 선무부가 거친 훈련을 하는 장소로 쓰였었는데도 웬지 그때는 그렇게만 생각되었다. 대학 본부 앞에 있을때 나는 아, 이것이 대학이구나,

# 제11대 **李智冠**총장 취임

## 前任 **黃壽永**총장 이임식 겸해

### 5日 증강당서

모교의 「제11대 총장 취임식 및 제10대 총장 이임식」이 지난 5일 오전 11시 **李智冠**총장 및 **黃壽永**前任총장, **鄭在鄭**전총장 등 역대총장, **吳棟**재단이사장, **金東正**부회장 등 동창회 임원, 동문국외위원, 교직원, 학생 등 내외귀빈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증강당에서 거행되었다.

이날 **李智冠**신임총장은 취임사를 통해 「개교 80주년을 맞은 해에 취임하게 되어 어깨가 무겁다. 전통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여 불교적 민주주의의 구현과 학교발전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하고, 동국중흥을 위한 네가지 공약을 밝혔다.

<관련기사 4면>  
삼귀의례, 국민교과, 국민교육헌장 낭독, 이사장告辭, 校旗전달등에 이어 **黃壽永**前任총장은 이임사에서 「제10대 총장으로 학교발전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했으나 능력이 부족하여 다 이루지 못하여 죄송스럽다」며 「7가지 발전계획 등 여러가지 어려움집이 많을 것이나 모든 동국인이 힘을 모아 이를 슬기롭게 극복,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전임총장에 대한 감사패 증정, **鄭在鄭**회장의 축사(金東正부회장 대독), 교가 제창, 사졸수원의 순으로 이날 행사를 모두마쳤다.

한편 이 취임식이 끝난후 본관 종합세미나에서 취임축하리셉션이 배움의이로 열렸다.

## 「**黃壽永**문고」설치 경주 **古美史科**에

모교의 **黃壽永**前任총장은 이

번 총장직을 퇴임하면서 자신이 소장하고 있던 고교미술사 관련 서적 및 자료 1천여권을 기증, 경주캠퍼스 고교미술사학과에 「**黃壽永** 문고」를 설치했다. 이 문고는 일제때부터 소장해온 문화재관계 귀중자료 및 고교미술 연구에 없어서는 안 될 회귀본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 모교의 고교미술 연구에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국내최대석순발견 洞探部정기탐험서

모교의 동굴탐험부는 강원도 산척군하장면 한동리 일대 동굴에서 높이 8m 폭 2m 가량의 국내최대규모의 석순을 발견했다. 지난달 10일부터 20일까지의 「통계 정기탐험」에서 탐사된 이 동굴은 전장 6백50m의 수직굴로 탐험팀에 의해 「院洞窟」로 명명되었으며,鍾乳石, 황금주, 립스톤등 외에도 불곰의 배설이 발견되었는데 이 동굴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 새 **東國人** 4,363명선발 마쳐

### 경쟁률 2.46대1 來3日 입학식

모교의 86학년도 신입생 선발이 지난 1월 13일 논술고사와 면접 및 22일의 합격자발표끝으로 마무리되어 새 **東國人** 4천 3백63명을 맞게 되었다.

이년 모교의 입학지원율을 보면 총 1만 7백26명이 지원 2.46대 1의 전체경쟁률을 보였으며, 문과대 연극영화학과 경우 38명 모집에 1천 58명까지



南都泳부총장    李丙疇대학원장    金仁鴻행정과장    吳德永경대원장    金鎔貞교대원장

## 李총장 취임다라

모교당국은 제11대 **李智冠**총장이 취임함에 따라 학·처장급에 대한 대폭적인 인사발단 행했다.

이년 인사의 내용을 보면, 경주캠퍼스 부총장에 **南都泳**(국사교육과)교수, 대학원장에 **李丙疇**(국문과)교수, 행정대학원장에 **金仁鴻**(정의과)교수, 경영대학원장에 **吳德永**(경제과)교수, 교육대학원장에 **金鎔貞**(철학과)교수, 문과대학장에 **吳國根**(영문과)교수, 이과대학장에 **崔燦**(화학)교수, 법정책대학장에 **朴昌魯**(행정학과)교수, 경상대학장에 **趙熙榮**(경영학과)교수, 농과대학장에 **金鎔浩**(임학과)교수, 공과대학장에 **李**

柱億(식공과)교수, 사범대학장에 **鄭址鎬**(수공과)교수, 이부대학장에 **安熙明**(전산과)교수, 경주문리과대학장에 **金炯秀**(국문과)교수, 법경대학장에 **金鎔培**(경제과)교수, 한의과대학장에 **李學仁**(한의예과)교수가 임명되었고 불교대학장에는 **金煥泰**(불교학과)교수가 유일되었다.

또한 기획조정실장에 **洪起三**(국문과)교수, 교무처장에 **朴先榮**(교육학과)교수, 학생처장에 **徐閔吉**(불교학과)교수, 총무처장에 **宋錫球**(철학과)교수, 비서실장 **權奇**(불교학과)교수, 경주교무부장서리에 **李來秀**(국문과)교수, 중앙도서관장에 **錢昌源**(무역학과)교수, 박물관장에 **張漢基**(영문과)교수, 과과관장에 **洪致**

## 「신입생적응지도」 설악산일원서 열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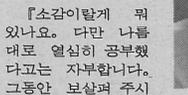
모교의 「86학년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지난 13일부터 23일까지 10일간 모교체육관과 설악산 유스호스텔등지에서 열렸다.

13일부터 23일까지 설악산 유스호스텔에서 각 단과대학별로 합숙을 하며 사제간의 대화, 80주 홍보영화상영등이 가졌다.

행정대학원장	金仁鴻	경영대학원장	吳德永
교육대학원장	金鎔貞	불교대학장	金煥泰
문과대학장	吳國根	이과대학장	崔燦
법정대학장	朴昌魯	경상대학장	趙熙榮
농과대학장	金鎔浩	공과대학장	李來秀
사범대학장	鄭址鎬	이부대학장	安熙明
문리대학장	李炯秀	법경대학장	金鎔培
한의대학장	李學仁	기획조정실장	洪起三
교무처장	朴先榮	학생처장	徐閔吉
총무처장	宋錫球	비서실장	權奇
중앙도서관장	錢昌源	박물관장	張漢基
과학관장	洪致	생활연구부장	金憲奎
교육연구부장	鄭鎔	경주교무부장	李來秀

## 인터뷰 **영예의 얼굴들과 함께**

### 수석졸업 朴鍾石 군



『소감이랄게 뭐 있나요. 다만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했다』고 자랑한다. 그동안 보살피 주시고 이끌어 주신 모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4년간 재학중 평균 평점 4.43으로 수석졸업의 영광을 차지한 **朴鍾石**(경주캠퍼스 행정학과) 군, 강의시간은 단한번도 빠지지 않았을 정도의 「誠實」이 전체수석의 비결이라면 비결일 것이다.

80명을 맞은 모교에 대해 「인맥과 정성을 버리고 능력있는 교수를 초빙, 학문적 위치를 확립시키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며, 도서관의 장서도 늘리고 제언 의견을 확충하여 공부할수 있는 분위기를 갖추어 주어야 할것이라고 말한다. 후배들에게도 「실력만 있으면 환영받는 것이 우리 사학의 풍토」라며 열심히 공부해 주길 당부한다.

전국 부인이 고향으로 「희재」라고 마음먹은 곳까지 밀고나가는 외골수형이라고 자신의 성격을 표현하는朴君은, 지난해 행정고시에 낙방한 것이 대학생활중 가장 가슴아픈 일이었다고, 이 때문에 공제에 합격, 입사한 S그룹에도 막바로 사표를 내고 서울대 대학원에 진학, 다시한번 도전해 보겠다고 고시합격에 대한 집념을 보인다.

### 수석입학 宣永植 군



『제가 수석을 하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었는데 뜻밖에 수석합격이란 소식을 들었을 때는 정말 기뻐했습니다. 저보다도 가족들이 더 기뻐해주더군요』

대입학력고사에서 3백4점 (내신1등급)을 받아 母校 전자공학과에 지원, 전체 수석입학이라는 영광을 안은 **宣永植**(19세·東大附高) 군은 수석입학의 소감을 이렇게 밝혔다.

2남1녀중 장남으로 서늘에서 태어나 국민학교와 중학교, 동대부고를 거치는 동안 출근 후 우수한 성적을 거둔 宣君은, 고독적인 비결을 묻자 「비결이랄것 없고 그저 성실하게 공부했을 뿐입니다.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을 가끔씩 즐기고 밤과 후에 도서관에 남아 북·예습을 철저히 했을 뿐」 이었다.

「침단학과 분야인 전자공학을 전공해 전자 교사로 教育界에 투신하고 싶습니다」라고 앞으로의 포부를 밝히며, 「東大를 택한 것 담임선생님과 주위의 권유도 있었지만, 대학에 좋고 나쁘고 어디있습니까?」라고 반문하는 宣君은 요즘의 세태를 비난이라도 하듯 어조를 높인다. 앞으로 테니스부장은 체육처를 기입해 대인관계를 넓히고 건강도 돌보겠다고. <京>

## 85학위수여식 박사학위수위자

- ▲金俊煥(철학박사) = 「元曉의 敎判觀研究」 現한국불교문화연구원 이사
- ▲李來秀(문학박사) = 「蔡萬植 小說研究」 現모교 경주캠퍼스 교무부장
- ▲李東煥(문학박사) = 「金代女眞社會構成的 研究」 現청주대 부교수
- ▲李學來(문학박사) = 「韓國近代體育史研究—民族主義의 性格을 中心으로」 現한양대 교수
- ▲張文秀(哲學博士) = 「莊子思想의 美學的 研究」 現경희대교수
- ▲李賢贊(法學博士) = 「青少年非行에 대한 懲罰의 統制方法에 관한 研究—警察初級幹部被教育對象者에게 對한 事例研究을 中心으로」 現모교 조교수
- ▲金泳宗(行政學博士) = 「韓國勞動政策의 決定過程에 관한 연구」 現모교 전임교수
- ▲李長春(行政學博士) = 「韓國의 福祉觀政策開發에 관한 연구」 現경기대 부교수
- ▲金鎔培(경제학박사) = 「開港期 朝鮮의 日·清通商條約에 관한 研究」 現모교 경주캠퍼스 법경대학장
- ▲黃在夏(경제학박사) = 「中共經濟의 成長趨勢와 構造變化에 관한 研究」 現강남사회복지대 부교수
- ▲李培碩(경제학박사) = 「우리나라 所得分配率의 實證的 분석에 관한 研究」 現경남대사무처장
- ▲崔炳龍(經營學博士) = 「消費者 滿足—不滿足에 관한 研究—性格特性과 關係를 中心으로」 現인하대 부교수
- ▲曹小淵(經營學博士) = 「會計情報시스템 평가에 관한 실증적 연구—한국호텔산업을 中心으로」 現세종대 부교수
- ▲辛容輝(經營學博士) = 「生産性 測定模型에 관한 研究—附加價值類型에 의 實證的 分析」 現인하대 부교수
- ▲金振漢(理學博士) = 「MBE에 의한 GaAs와 AlxGa<sub>1-x</sub>As의 物理的 特性의 成長」 現경원공업전문대 부교수
- ▲李賢奭(農學博士) = 「砂防施工地 植物社會의 生態學的變化에 관한 研究—京畿道 驪州地域을 中心으로」 現상지대 병설전문대 조교수
- ▲嚴基煥(工學博士) = 「飽和 및 比例特性을 가진 서어보용 制御器의 最適設計」 現유한공업전문대 부교수
- ▲辛憲泰(工學博士) = 「한국산 오갈피 열매의 성분에 관한 研究」 現호성지식(株) 기술교수
- ▲崔光洙(工學博士) = 「메트르트 파우치 살갑의 製造條件에 관한 研究」 現영남대교수
- ▲李培碩(경제학박사) = 「우

# 내가 나에게

羅銀珠 (86·국문)

이젠 그런. 마한가지야 섭섭한 건. 너 혼자 졸업하는 것도 아니잖아. 남들이 보면 웃어 기집에 티 내다구. 아냐, 니 속을 모르는 게. 그래두 어쩔잖니, 잠이야지.

애야, 웃으면서 떠나. 선생님들께서 지켜 보시잖아. 강의내용보다도 당신의 인품을 더 존경하던 너였잖니. 씩씩하게 걸이 가는 뒷모습을 보여드려. 방학이 가까와오면 아르바이트를 걱정해 주시고, 사회에 나가는 너희들을 위하여 그 좁은 문

지 수년이구나. 지을획인지 편지 때문에 학교가 휘청거리고, 그들의 우정화라는 게 결국은 축복반이야 할 대학졸업단의 얼굴을 창백하게 만들었구나. 먹고 산다는 게 힘든건지, 아니면 사회가 뒤죽박죽인 건지.

그런데 너 두려워하고 있더구나. 너 뭘 필요 없어. 사회인과 학생은 별종이 아니라구. 사회에 나간다고 니가 백발십도 변할지 같니? 니가 사회에 나가면 너도 사회인이야. 니 선배님들이 계신 곳이고. 후 사회인들에 대해 뒤돌았던 것이 있다면 그러지 양도록 애쓰면 되잖아.

애야, 지난 번엔 정각원에서 났을 걸고 앉아 있구나. 무슨 생각했어? 백발 백년을 오르듯 오르내린 동악(東岳)? 아니면, 불비니 동산의 풀새들? 남산의 사계(四季)? 그것도 아니면 짝사랑한 그 남자?



을 몸으로 밀치시던 본 아니니. 진부한 예기로 들리겠지만 보담은 지금 하는게 아니야. 사회에 나가서 제 구실하면 되거지.

자취방 구석에 주그리고 앉아 고민도 많이했지. 정말 잊같은 생각때문에 선생님과 너희들 삼각이 벌어지고, 당신들의 권위가 일간지 기사11번으로 깔려 버릴 때...그래도 입만, 그분들은 역시 선생님일뿐이야. 니가 그분 제자임을 잊지 않는 한 별절할 수 없는 그 한때는 학교 구석구석까지 배어 있는 거만일야.

애야, 친구들 때문에 너무 가슴 아파 하지마라. 끝 다 잘 되겠지. 글썽, 불순하니까 해어원까, 들어와서 졸업할 할 때가

그런데, 너 두려워 하고 있더구나  
그럴 필요 없어 사회인과 학생은  
별종이 아니라구...애쓰면 되잖아

너무 많이 생각하니까, 색이 날라버리니까. 그 모든 것들은 날 떠난다. 좀 일찍이 떨어져서 어른이 돼가는 너 모습을 바라볼 뿐이지. 보고 싶거든 언제든지 달려와서 바라. 떠나더라도 너의 학교 너의 공간이야.

애야, 남산골의 살아있는 초록빛은 네게도 배어 있단다. 어디든 그 빛을 믿어 말아라. 부처님의 자리, 네 부모님의 사랑, 선생님들의 사랑, 선우배들의 입

## 한국문학상 金文洙 동문 詩協賞 金初蕙 동문

金文洙(62국문) 동문은 단편소설 『근』으로 韓國文學社가 제정한 제11회 한국문학작가상 본상을 수상했다. 재학시절 조선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한 후 75년 현대문학상, 79년 한국창작문학상등을 수상한바 있는 중견작가 金文洙은 『환상의城』 『그 여름의 나팔꽃』 등 7권의 소설집을 펴내기도.



▲金文洙



▲金初蕙



▲李元揆

문에지흥된 강당서 있을 예정.

수상시집에 수록된 연작시 「사랑각」은 존재초월과 완전자에 대한 괴리, 「문동복출」 「문동복출」은 현실적 존재조건에 대한 비극적 깨달음을 그리고 있는 작품들.

최고의 영예인 同賞을 수상케 해 회제.

『이데올로기의 부딪힘』이라는 전경의 비극적 성격을 독특한 시각으로 다른 秀作』이라는게 심사를 맡았던 河瑞燦·金濟俊씨의 말. 한국문단의 수준급작가들

### “李元揆동문 현대문학 長篇단선”

『소설론』 주간을 역임한 金동문은 현재 『한국문학』 편집장으로도 활동중이다.

한편 『現代文學』 창간 30주년 기념 장편소설 현상공모에서 『호정과 굴레』로 당선된 李元揆(75국문) 동문은 37살인 84년 『月刊文學』 신인상으로 이번 영예를 안게 되었도. 시상식은 오는 3월22일

을 발할래면 우수한 동문들을 통과한 金동문은 이번 페보로 東國文學의 내일을 밝히주었고, 『앞으로 역사초록을 조명하는 인간군상을 조망하는 작품을 쓰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창작동인으로 활동중인 李동문은 仁川 대건高 교사로 재직중이다.

## 新刊안내

### 「佛敎學報 22집」 佛敎文化研究院

모교 불교문화연구원에서 『佛敎學報 22집』을 출간했다.

수목된 주요논문은 보문 조선 佛敎의 法統考(金煥泰·59 불교) 신라 大賢法師연구Ⅲ(채인환·64 불교) 한용운의 政敎론에 대하여(서경숙·64 불교) 吉藏의 草木戰佛論(김진태·62 불교) 延壽의 淨淨修儀(이재관·69 불교) Bhagavad-gita에 있어서의 bhakti-yoga의 불교적 수용과 정도교(정태형·55 불교) 불교사상이 한국유리에 미친 영향(김진환) 한국고대사 원전집의 지형·지질학적 입지 조건(김주환·63 불교) 善松 智嚴의 신지료와 범종문제(고익진·69 불교) 등으로 되어있고, 부록으로 점필려(鄭道)를 수록했다.

〈동국대 출판부〉

### 「창조를 위한 어백」 金三龍 동문

金三龍(56 불교·원광대부총장) 동문은 지난60년대의 안팎을 돌아보고 정리한 수상집 『창조를 위한 어백』을 출간했다.

마 한-백제문화연구원소장으로 출판 학계에서 연구 및 저술 활동으로 일관한 金동문은 서문에서 『보잘것 없는 경험이고 신념일망정 너를 통해서 너는 삶을 살수 있도록 후배들에게 얘기해주고싶었다』고 쓰고있다.

〈동화출판공사〉

### 「움」 睦植培 동문

睦植培(62불교·모교교수) 동문의 칼럼 모음집 『움(庵/om)』이 간행했다.

이번 15년간 각종 지면을 통해 발표된 睦동문의 불교적 인생관, 예제적 불교교리와 한국주요고승의 일생등이 성실하게 쓰여져 있다.

전4부로 된 이 칼럼집 목차를 보면 1부 「色香樂生」 등 25편의 時論, 2부 「뜨는 해

지는 달」 등 43편의 칼럼, 3부 「이와같이 우리는 불쌍하구나」 등의 교리, 4부에는 겨울의 맥인죽의 신앙에 대한 글들도 되어있다.

〈대원정사〉 3천5백원

### 「땀감을 깨우는...」 都昌會 동문

都昌會(62영문·모교교수·수필가) 동문은 2년간의 예제 이들을 모아 『땀감을 깨우는 마음으로』를 펴냈다.

모교 영문과 교수이며 수필가이기도한 都동문은 살아오며 느낀 일들을 틀림없이 실고에 옮기고, 이시대에 정리가 쉬운 생각들을 성실히 정리한 것이다.

〈고음사〉 3천5백원

### 「명심보감선」 朴堤干 동문

朴堤干(68국문·시인) 동문은 어린이들을 위한 『명심보감선』을 펴냈다.

샘터 파랑새문고10권으로 나온 이 책은 명심보감중에서 어린이들에게 유익한 부분을 가려 뽑아 범람한 것으로 구성됐. 전면판, 종신판등 16권으로 된 본문과 부록으로 효자할터등 5권의 선화를 실었다.

차동문은 책끝의 「풀들에게 이르지 않는 마음」이라는 글을 통해, 예부터 어린이들이 즐겨 읽고 마음과 몸을 바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 한자본이 되며 읽을 수 없는 점을 안타깝게 여겨 왔으며, 이 책을 풀들에게 이음을 지어주는 마음으로 꾸었다고 밝히고 있다.

### 「생태편 2천2백원」 「인도의 旅程」 鄭炳朝 동문

鄭炳朝(71·인철·모교교수) 동문이 인도 네주대하 교향교수 시절 탐타의 유적지를 순례하며 탐타의 성지순례기 「인도의 旅程」을 펴냈다.

이 순례기는 생생한 감동으로 불꽃은 신앙을 집합했는데, 경전을 통한 교리의 한계를 벗어 나 현지의 유적을 소개하며 불교의 믿음과 새로운 이해를 도모하고 있다.

〈대원정사〉 4천5백원

## “7만東國人...성숙한 東國으로”

### 7만동문 내적성숙을

○...모교 85학년도 학위수여식이 거행됨에 따라 본회도 2천4백여명의 새회원을 맞이하여 분주한 모습들.

새회원과 새발골동문이 가세한 본회는 명실공히 7만동문이라는 매머드급 종합회로 성장했는데, 이제 대시구가 됐다. 자만도 들들 것이 아니라 내적성숙을 도모함과 아울러 동문들의 숨을 위하는 마음을 하나로 아꼈음은 어쩔필지요.

우려되는 점은 그 규모에 비해 동문들의 회비납부실적이 각종 회의참석도가 아니라 내세울만한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인데, 이것이 관심의 초도라고는 할수 없지만 출발점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일이 아닐까요?

7만동문체위계 부타하노니 본동문들이 더욱 알찬 동창회, 더욱 알찬 회보를 위해 매진할것을 약속드리며, 많은 동문들의 애정 어린 격려와 자발적인 동참을 기대함

나이다.

### 가짜동무 조식 또조식

○...최근 H신문사에 근무한다며 동문임을 사칭하고 구계동문들을 찾아다니며 책을 강매하는등 東國의 이성을 부끄럽게하는 사람이 있어 본동문중子 양속스럽기만.



東동국대 동동창회 동물조직

동창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본래 동문간의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고 보면 이런 불미스런 행태로 말미암아 동문들이 누를 끼치지 있어서 는 안될듯.

## 東岳의 연꽃은 아지시들지 않아

김이 만든 빛깔이야. 우물해하지마. 자, 웃자. 밝게 활짝 웃어. 그리고 너도 사랑했건 그 모든 것을 위해 무얼할까를 생각해.

아, 또 있다. 속내가 되는 것. 이게 그놈의 청바지도 좀 떨어 버리고 분구기 정화를 해 보라구. 사회정화의 일환으로 함.

어머, 좀 예쁘게 웃어라. 자고로 속내는 손으로 입을 가리고 이렇게 웃는 거란다. 호호호.

늘 주지하는 바와 같이 동문체위계에서 이러한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심 또 조심 부탁드립니다.

### 二重產苦 겪은 신입생

○...해모교입시에서는 불합격처리된 수험생이 합격으로 당당히 반복되는 해프닝이 벌어졌는데...

바로 그 화제의 주인공은 수학과에 지원한 金壽輝君으로 학교입수시 합격표내에 들었지만 「외모와 보편·언어에 불리한 장애자」라는 점이 유가 되어 당초 합격자발표에서 제외됐었던 것인데, 결국 입시교무회의에서 최종적으로 합격이 인정되자 본인은 말할것도 없었고 주위사람들도 진작에 그랬어야 했다며 호탕한 표정을.

二重產苦를 겪고 東岳에 발을 딛은 金君에게 본동문중子 두말 세말의 힘찬 노력이 있기를 바라며, 모교의 연꽃은 아직 시들지 않음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 ?소설손자병법을 누가 읽는가? !지혜롭게 사는 분들이 읽는다!

\*處世學의 교과서, 政治學의 보감, 企業經營의 지침서!  
**小説孫子兵法 제4권 <兵法解説> 出刊!**  
(孫子兵法) 原文完譯, 兵法解説, 兵法의 에센스 및 (小説孫子兵法) 과의 연계성을 밝힌 兵法과 小説의 集大成! 응용해야할 兵法索引 (Index) 188 구!

日本語版 出刊 迫頭!  
小説孫子兵法 日本輸出 決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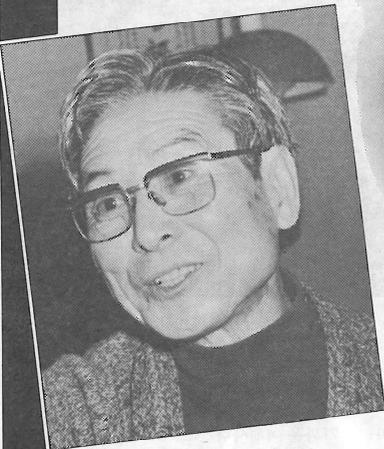
**鄭飛石** 長篇 小説

**脫不況宣言!**  
小説 孫子兵法에 그 길이 있다!

소설 손자병법은 합리적인 기업 경영, 원만한 인간관계, 그리고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 세상사의 철리를 터득하여 성공의 지름길을 찾고자 하시는 당신이 읽으셔야 할 현대인의 성전입니다.

# 小説 孫子兵法

\* 날권판매



**탄탄한 성공의 지름길**  
小説 孫子兵法!  
**한국 출판 사상**  
**초유의 판매부수기록!**  
천하명장 孫武와 그의 손자 孫臏, 제세의 호걸 오자서와 경국지색 서사, 와신상담으로 야망과 복수의 칼을 가는 5패 16국의 제왕들, 그 최대의 영웅미녀들이 엮어가는 흥망성쇠와 이합집산의 드라마를 통해 인간사의 철리를 세상 깨우쳐 주는 감동적인 小説.  
전 4권/각권 각300면 내외/각권 값2,800원/♣서점에 있습니다.

小説孫子兵法에 이은 또 다른 力作, 小説楚漢誌!

## 小説 楚漢誌

\* 鄭飛石이 내놓은 또하나의 인생교과서! 현대인이 빌어써야 할 성공의 지혜가 넘치는 장엄하고 웅대한 대하소설 小説楚漢誌!  
전 5권/각권 각300면 내외/각권 값2,800원

인류사상 最大의 인생흥망극, 小説三國志!

## 小説 三國志

\* 男子가 뜻을 세우고 女子가 世上을 읽을 기가 막힌 妙案들이 곳곳에 도사려 있는 小説孫子兵法의 作家 鄭飛石 小説三國志!  
전 6권/각권 각340면 내외/각권 값2,800원



**고려원**

서울·종로구 수송동 46-22  
서울 중앙사서함 제 6622 호  
영업부 : (739) 7741 ~ 3  
편집부 : (730) 8082 ~ 4

# 노스웨스트 오리엔트가 로스앤젤레스로 매일 운항합니다.

## 아시는분은 노스웨스트 오리엔트를 선택하십니다.



로스앤젤레스로 가십니까? 일주일 중 어느날이라도 로스앤젤레스행 항공편이 있는 노스웨스트 오리엔트를 선택하십시오. 미국 제1의 태평양 횡단 항공사가 드리는 또하나의 서비스입니다. 노스웨스트 오리엔트는 지난 39년간 한국과 미국간을 계속해서 운항해온 항공사로서 매일 로스앤젤레스로 향하는 항공편을 비롯하여 씨애틀행 노스튬편을 통해 가장 빠르게 미국으로 모셔드리며 도착 즉시 방대한 국내선 연결망을 통해 다른 항공사로 갈아타는 불편 없이 미국의 주요도시로 연결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한국인 여승무원의 친절한 안내와

함께 일등석과 익제큐티브 클래스에서는 세계 정상급의 리갈 임페리얼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해외여행 경험이 많으신 분이 노스웨스트 오리엔트를 선택하는 이유입니다. 가까운 여행사나 노스웨스트 오리엔트로 전화하십시오.

5:10pm	→	씨애틀 (최 9:50am)
4:30pm	→	로스앤젤레스 (착 10:05am)
1:45pm	→	시카고 (착 12:15pm)*
	→	뉴욕 (착 3:20pm)
12:50pm	→	샌프란시스코 (착 12:40pm)
	→	호놀룰루 (착 8:55am)

\* 1986년 4월 운항계획



People who know...go  
**NORTHWEST ORIENT**

예약은 가까운 여행사나 노스웨스트 오리엔트로 해 주십시오. ● 조선회텔 753-6106/9, 755-0416/7, 777-9786 ● 롯데호텔 778-8240/1 ● 할튼호텔 752-2394/5 ● 소공사무실 778-0181/7 ● 반도호텔(부산) 44-2240, 462-3443